

일본 연수를 마치고서

안정순·김규양

(성빈센트병원 간호사)

한달간의 연수를 위해 고국을 떠나는 순간 이국에 대한 호기심과 언어소통 등 연수교육을 보람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불안감이 우리를 압도하였으나 성마리아 병원에서 마중나오신 간호부장님과 여러분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반겨주어 그런 불안감은 다소 해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수한 성마리아 병원은 Fukuoka의 久留米市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8년에 개원한 1420 bed의 종합병원으로 직원수는 약1100명 정도였고 전산 System으로 편리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호port의 아침근무는 8:30AM~17:00PM 저녁근무는 16:30PM~1:00AM 밤근무가 0:30AM~9:00AM 까지였고 저희들은 아침근무만 했습니다.

숙식은 근무하고 왔을때 피로를 풀수있는 아늑한 휴식처로 꾸며져 있는 외국인 전용 기숙사인 Marian house에서 지냈으며 그곳에는 8개월코스 연수생인 타일랜드인 한명 유학생인 브라질인 한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첫날 orientation시 감독 간호사님의 안내로 2시간30분 정도 병원전체를 돌아보면서 훌륭한 시설에 부러움도 없지 않았고 orientation 이 서지않아 헤메었지만 하루이틀 지나자 근무하기에 별 불편감 없이 익숙해졌습니다. 의료팀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내 가족같이 정중한 태도로 궁금한 점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었으며 세세한것 까지도 배려를 해주었고 환자중심의 간호로 인간의 존엄성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NICU 근무시에는 제1차 진료소에서 연락이 와서 미숙아를 반송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사·간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서 모셔오며 구급의료센터는 119 구급차로 오는 환자분들도 많았습니다.

앰블런스가 지나갈때는 1차선 도로에서도 신속하게 길을 터 주는것을 보며 일본교통질서 수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NICU 안에는 의공학사 및 영양사가 같이 근무하며 기계작동 불량이나 고장시에는 즉시 고쳐주고 모든 기계관리를 수시로 점검해 주며 영양사는 종류별로 우유를 조제하여 준비해주기 때문에 간호행위 하는데 편리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근무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자기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여 적당히란 단어는 통할 수 없게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우리도 본받을 만한 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친절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저희들 역시 Fukuoka의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에 느낄수 있었으며 모든시설과 의료진의 치료자세와 Care면에서 다 좋은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환자중심의 철저한 치료모습 또 그네들의 근면절약 정신과 성실성은 뛰어났습니다. 물품은 풍부한 가운데서 절약을 했고 재생할 수 있는것은 결코 버리는 일 없이 재생해서 사용했으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다는 일의 편리성을 추구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주로 우리가 환자 Care 및 기계구조·사용법등을 질문하는 반면에 근무시간 외에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궁금한 점을 많이 물었고 이번 I.C.N 총회때는 병원측의 배려로 Nurse가 50명 참석했다고 자랑도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서울 올림픽 및 한복(꼭 치마저고리로 표현)과 우리의 고유음식인 갈비와 김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개월은 빨라서 맑은 가을하늘과 성마리아 병원의 원장님 여러분들의 환송을 받으며 잠시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지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긴장감이 풀려 나른한 피로감을 맛 보았습니다.

연수기간을 보람있고 탈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성마리아 병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성마리아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경험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의료원장님과 의무원장님 사무장님등 본 병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기간동안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기쁨의 은총 받으시길 기도 드립니다.